

# 드루즈(Druze)종족의 현황 및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레반트(Levant)<sup>1</sup> 지역을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MFR(Middle east Field Resesrch) 13기 훈련팀<sup>2</sup>

---

<sup>1</sup>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지역을 통틀어 레반트(Levant)라고 한다.

<sup>2</sup>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MFR(Middle east Field Resesrch) 13기 훈련팀에서 2007년 12월 27일 ~ 2008년1월17일까지 시리아 골란고원(Golan Heights)을 중심으로 드루즈 종파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이다. ( 이 외에도 조사 활동협력 단체 등을 추가 기입할 수도 있다.)

# I . 연구설계

## 1. 연구배경

드루즈는 이슬람 시아파의 이스마일 분파에서 유래된 소수종파이다. 이슬람의 분파임에도 불구하고 코란이 아닌 히크마를 신봉하고 이슬람 신앙의 다섯기둥을 거부하는 등 이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천여년동안 자신들의 종교를 지켜왔다. 전 세계 드루즈 인구는 약 140만명정도로 주로 레반트 지역에 분포하며 오늘날에는 레반트 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등 전세계로 퍼져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소수종파로 역사 속 수많은 핍박가운데 점점 은닉성을 띠게 되었으며 특히 시아 이슬람에서 드루즈로 개종하는 것을 막고난 후부터는 더욱 심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지인들이 ‘드루즈는 배의종교이다’ 즉, ‘그 속을 도저히 알수없는 종교’ 라고 말할만큼 단혀있다. 드루즈는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살고있어 현지인들끼리도 많이 공유되어 있지 않고 종교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비밀스럽다.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는 드루즈의 복음화 지수를 1.2<sup>3</sup>로 표시하고 있으며 API level 0<sup>4</sup>, CPI level 1<sup>5</sup>로 나타낼 수 있다. MFR 10,11,12,13기에 걸친 네번의 조사에 의하면 드루즈 커뮤니티 내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드루즈를 대상으로만 사역하는 사역자는 없다. 자신의 사역과 더불어 드루즈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도 있기는 있지만 한 나라에 두명정도로 극히 적은 숫자이다. 특히 한국에서 드루즈를 품고 파송받은 선교사는 한명도 없으며 한국교회에 드루즈 종파에 관한 자료는 전무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MFR은 10,11,12,13기 네번에 걸쳐 드루즈 종파를 조사하였다. 각각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에 사는 드루즈를 조사함으로 지역과 관련된 드루즈의 일반적인 생활과 사회부터 그들의 공통된 역사와 교리까지 계속해서 좀더 확실한 정보들로 다듬고 현장성있는 자료로 갱신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조사팀은 이제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드루즈 조사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뛰어넘어 네번에 걸쳐 조사된 모든

---

<sup>3</sup> progress scale 1.2 - 복음주의 0.01%이상 2%이하, 기독교인 5%이하

<sup>4</sup> No agency commitment

<sup>5</sup> No churches, some believers

정보들을 종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왜냐하면 드루즈는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의 종파적 특성이 짙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을 간파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내용은 어느 지역의 드루즈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될수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MFR 13기 훈련팀은 다음과 같은 드루즈 종합 보고서를 내게 되었으며 이 보고서를 통해 좀더 실질적이고 쉽게 헌신자들이 드루즈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2. 연구의 목적

- 1) 네 차례의 조사를 종합함으로 드루즈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도출하고 더불어 높은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한다.
- 2) 나라의 단위를 뛰어넘어 전체 드루즈 종파에 적용될 수 있는 총체적인 선교전략을 도출한다.
- 3) 본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선교헌신자와 드루즈의 연결점을 마련하고 기도로 복음의 문을 열 중보기도자들을 동원한다.

## 3. 조사지역

MFR 10기 - 시리아 예즈 스웨이다(As Sweida)주(州) 샤하바(Shahaba), 살카드(Salkad), 에라(Era)지역

MFR 11기 - 레바논 마운트레바논(Governorate Mount Lebanon)의 알레이 지역(District Aley) 알레이시(City of Aley)를 중심으로, 베이루트, 슈프, 하즈바야 일대

MFR 12기 - 이스라엘 하이파주(Haifa District) 하이파지역(Haifa Sub-district) 이르 카멜시(City of Ir Karmel), 북부(North District) 골란지역(Golan Sub-district) 마즈달 샴스마을(Majdal Shams Town)과 주변 드루즈 마을들

MFR 13기 - 시리아 다마스쿠스시(City of Damascus), 예즈 스웨이다주 내 스웨이다(Sweida)와 살카드(Salkad), 골란고원(Golan Heights)내 하다르(Hadare), 카타나(Katana), 아아네티나(Einehtineh), 모가르 미르(Mogar Mir)마을과 그 부근 아르네(Arnah)마을

## 4. 조사대상

MFR 10기 - 시리아 스웨이다 주 샤하바, 살카드, 에라지역의 드루즈 종파

MFR 11기 - 레바논의 드루즈 종파

MFR 12기 - 하이파지역 이르 카멜시의 드루즈 종파

골란지역의 마즈달 삼스마을과 주변마을들의 드루즈 종파

MFR 13기 - 골란고원 내 하다르 마을과 주변마을의 드루즈 종파

에즈 스웨이다주 스웨이다시와 주변마을의 드루즈 종파

## 5. 현장조사기간:

MFR 10기 - 2006년 7월 6일 ~7월 26일

MFR 11기 - 2006년 12월 28일 ~2007년 1월 18일

MFR 12기 - 2007년 7월 6일 ~7월 25일

MFR 13기 - 2007년 12월 27일 ~ 2008년 1월 17일<sup>6</sup>

기간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2007/12/28- 2008/12/31	다마스쿠스(Damascus)	다마스쿠스 시내	관찰조사
2008/01/01- 2008/01/10	골란고원(Golan Heights)내 하다르(Hadare), 카타나(Katana) 모가르 밀 마을	마을 촌장 및 마을 주민 4명	인터뷰
2008/01/11- 2008/01/12	스웨이다(Sweida)	유시프(Joseph) 목 사님	인터뷰
2008/01/12- 2008/01/14	골란고원(Golan Heights)내 모가르미르 마을	마을 주민	관찰조사
2009/01/15- 2008/01/17	리서치 정리 및 귀국		

## 6. 조사인원

<sup>6</sup> 이 기간은 현장에서의 조사시간 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팀은 2007년 3월에 구성되어 5개월 간 10주간의 학기 중 훈련(리서치 강의, 예배, 말씀양육, 캠프 2회, 리서치실습, 선교세미나, 부서모임, 지역연구 모임 등), 10일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사, 팀워크 훈련, 역할점검 등), 3주간의 현장조사, 10일간의 보고서 합숙 과정을 통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MFR 10기 - 9명

MFR 11기 - 9명

MFR 12기 - 7명

MFR 13기 - 5명

###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시리아 현지 조사팀<sup>7</sup> 5명

	이름	학부 (학번)	역 할
1	나은영	GLS 학부 (07)	디렉터, 예배부원
2	박지영	GLS 학부 (07)	섬김이, 총무부장
3	이승재	GLS 학부 (07)	섬김이, 미디어부장
4	이가민	GLS 학부 (07)	훈련생, 예배부장
5	신지윤	GLS 학부 (07)	훈련생, 문서자료부장

### 2) 통역자 3명

	이름	소속	역할
1	심 o o	시리아 교회	현지 매안 코디네이터
2	임지훈	한동대학교/인터콥	현지가이드 및 아랍어 통역

## 7. 조사방법

### 1) 사전조사

#### (1) 문헌 조사

① 인터넷 조사: [www.wikipedia.org](http://www.wikipedia.org)

② [www.joshuaproject.net](http://www.joshuaproject.net)

③

④ 문헌 조사: ① <Curious Syria>, 2005. 콜먼 사우스

---

<sup>7</sup>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 훈련 단체인 GFR(Global Field Research)에 소속된 8개 지역조사팀 중 MFR(Middle East Field Research) 훈련팀을 말한다. GFR 훈련 체계의 1단계인 훈련팀(Training Team)은 미전도 종족 조사에 중점을 두고 훈련되며, 다음 단계로는 주제별 현장조사에 중점을 둔 미션팀(Mission Team)과 전문가팀(Expert Team)이 있다.

⑤                      ② <Lonely Planet Syria&Lebanon>,2004. Terry Carter, Lara Dunston, Andrew Humphreys

## 2) 현장 조사

### (1) 관찰 조사

마을 관찰 조사: 시리아 골란고원(Golan Heights)내 하다르(Hadare), 모가르 미르(Mogar Mir), 카타나(Katana), 아이나티나(Einetineh) 마을

### (2)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① 스웨이다(Sweida) 교회 담임목사 유시프(Joseph)

일반인 인터뷰 ① 하다르(Hadare) 마을 촌장님 사드 알리 무스타파(Saad Ali Mustafa).

② 하다르(Hadare) 마을 주민 Kamir(남)

③ 모가르 밀(Mogar Mir) 마을 주민 Hoda(여)

④ 모가르 밀(Mogar Mir) 마을 주민 Ali(남, 62)

①

### (3) 문헌 조사

① 시리아 아사드(Assad) 국립 도서관 방문 문헌조사

② E. J. BRILL <THE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ITION, (1983) .

③ Birgit Schaebler <REBELS, SHAYKHS, AND STATE(S) The integration of the Druzes and the struggle for social control in Syria in the 19<sup>th</sup> and 20<sup>th</sup> centuries> (1996)

④ J.A. HAMMERTON <Lands and people of the world>

⑤ Terry Carter, Lara Dunston, Andrew Humphreys

<Lonely Planet Syria&Lebanon> (2004)

⑥ MFR 10,11,12기 보고서

## 8. 연구성과와 한계점

드루즈는 소수종파이다. 이러한 정체성으로부터 이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점점 은닉성을 띄게 되었다. 은닉성은 드루즈를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제까지 드루즈에 대해 연구되어 온

자료들 중 대부분은 그들의 핵심적인 부분은 간파하지 못한 매우 개괄적인 자료가 많다. 또한 대부분 오래된 자료라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는 드루즈를 ‘최우선 복음화 종족’으로 선정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드루즈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2006년부터 이루어진 네번의 드루즈 종파 연구는 조사와 보고를 반복함으로써 드루즈를 알리고 드루즈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발점이 됨에 가장 큰 연구성과를 둘수있다. 특히, 한국에서 드루즈를 대상으로 삼고 세나라, 네차레로 진행된 연구는 본 조사팀의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시도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국 선교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드루즈를 선교헌신자와 이어주는 연결점을 마련하며 연구내용에 따른 선교전략제시로 선교헌신자가 좀더 쉽고 구체적으로 사역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그 동안 조사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취합하고 그 신뢰도를 최상급으로 높였다는데 의의를 둘수있다. 네차레의 현장조사와 정리작업을 통해 현장감 있는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었으며 그 중 드루즈를 이해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내용들만 종합하였다. 또한 특히 MFR 13기 훈련팀에 동행한 통역자에 의해 그동안 정확하지 않고 상충되는 부분들을 수정하여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종교부분에 있어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며 이전에 없었던 선지자와 히크마에 대한 연구는 드루즈에 대해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더불어 하나의 종파적 관점으로 드루즈를 바라봄으로써 지역을 뛰어넘는 선교전략을 제시하는데 힘썼다.

네차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드루즈 연구의 한계는 그들의 은닉성에서 비롯된다. 아직까지도 히크마에 기록되어있는 구체적인 드루즈 교리를 알수 없으며 외부인의 신분으로써 종교인과의 인터뷰가 어렵다. 만약 인터뷰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종교이야기는 매우 꺼리기 때문에 직접 종교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인터뷰는 주로 일반인들과 이루어졌는데 이들 가운데서도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은 인터뷰 가운데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8</sup>. 그러나 많은 표본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내용을 추출하고 통역분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신뢰도를 높이려 노력하였다.

---

8 드루즈 사람들은 그 교리에 '드루즈가 노출되는 위험이 있을경우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사팀과의 조사가운데 거짓말이 섞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2008.1.12 스웨이다 주 현지 사역자 유시프(70)목사님과의 인터뷰.

## II. 들어가는 말

드루즈(Druze)종파는 이슬람의 시이파(Shi'a)<sup>9</sup>에서 갈라져 나온 이슬람의 분파이다. 정통 이슬람과는 다른 독특한 모습을 유지하며 약 1백만명의 인구가 레반트(Levant)지역<sup>10</sup>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종파이다. 미전도 종족 세계연대(UPMA)와 여호수아 프로젝트(Joshua Project)에서 각각 ‘최우선 입양 추천 종족’, ‘최우선 복음화 대상 종족’으로 선정하고 있는 등, 복음화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한국어 자료는 전무할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된 자료조차도 현장감이 없는 과거의 자료이거나, 개괄적인 정보만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중동권이외에는 거의 알려지지조차 않았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MFR에서는 드루즈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3번의 조사팀을 파견하여 드루즈종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로 현장감이 있는 정보가 축적되고, 드루즈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은닉성’이라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들의 종교에 대한 체계성있는 현장조사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

본 조사팀은 드루즈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통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를 느꼈고, 이에 따라 드루즈인의 핵심 정체성인 종교에 초점을 맞추고 시리아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팀이 작성한 보고서는 드루즈의 정체성과 종교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드루즈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부분과 종교분야에 많은 분량을 할애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드루즈인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드루즈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지 않았고, 이 지역의 일반적인 아랍인의 문화와 비슷하다는 것을 유념하여 읽기 바란다<sup>11</sup>. 또한, 보고서에서는 드루즈 전체를 지칭할 때는 ‘드루즈 종파’라는 단어를 쓰고, 드루즈 사람을 지칭 할 때는 ‘드루즈 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를 통해 드루즈종파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들을 위한 증보기도자와 사역자가 동원되어 드루즈의 복음화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sup>9</sup> 전세계 이슬람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정통 이슬람이다.

<sup>10</sup>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요르단을 통칭하여 부르는 지명이다.

<sup>11</sup> 드루즈인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이전에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에서 발간된 <선교지역연구> 1, 2, 3권을 참고하길 바란다.



# Ⅲ. 드루즈 종파의 현황

## 1. 드루즈의 정체성

### 1) 정체성

#### (1) 종족명

드루즈(Druze)라는 종파명은 드루즈의 초창기 중요 인물중 하나인 알 다라지(Al Darazi)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1016년 경 알 다라지에 의해서 시작된 신앙운동을 추종하는 자들을 통틀어 ‘Darazis’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드루즈 종파의 실력자였던 함자 이븐 알리(Hamza ibn Ali)를 따랐던 자들을 모아히둔(Al-Muwahhidun)이라 불렀기 때문에 어떤 드루즈들은 자신들을 모아히둔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2) 주요언어

아랍어(Arabic)을 사용한다.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을 북 레반트(North Levantine)<sup>12</sup>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쓰이는 아랍어를 동부 아랍어라고 한다. 아랍어는 이 지역의 지배적 언어로 쓰이고 있는데, 드루즈 종파 역시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명한 드루즈 시인, 작사가, 작가들도 모두 아랍어로 작품활동을 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스라엘 드루즈인은 지역에 따라 언어사용양상이 바뀐다. 카멜지역의 드루즈 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시리아의 영토였던 골란고원 드루즈인들은 아랍어를 사용한다.

---

<sup>12</sup>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요르단 지역을 통틀어서 레반트(Levant)라고 한다.

## 분포 및 인구

### (3) 인구

국가	인구(명)
시리아(Syria)	865,000
레바논(Lebanon)	315,000
이스라엘(Israel)	118,000
요르단(Jordan)	20,000
중동외 지역(Outside the Middle East)	100,000

< 표 1-1 드루즈의 거주지역 분포 >

## 위치

### (4) 분포지역

드루즈(Druze)는 시리아(Syria)와 레바논(Lebanon), 이스라엘(Israel)에 주로 거주한다. 시리아에 거주하는 드루즈는 시리아 측 골란고원(Golan Heights)와 에즈 스웨이다(As Sweida)주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레바논에는 중부의 레바논산맥(Mt. Lebanon)에 드루즈 집단 거주지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드루즈인들은 갈릴리(Galilee)와 골란고원, 하이파(Haifa)시 인근 카멜(Carmel)지역에 많은 수가 마을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측 지역에 사는 드루즈는 다수가 시리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sup>13</sup>.

<sup>13</sup> 1967년 6월전쟁때 이스라엘군에 의한 골란고원 점령 당시, 많은 시민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거부하고 시리아 시민으로 남아있다. 현재 이들은 국제법상으로 '국적 미정의 민족(Undefined people)'으로 남아있다.



<그림 Ⅲ-1 드루즈 거주 지역>

## 2) 역사

### (1) 드루즈역사

#### 1) 드루즈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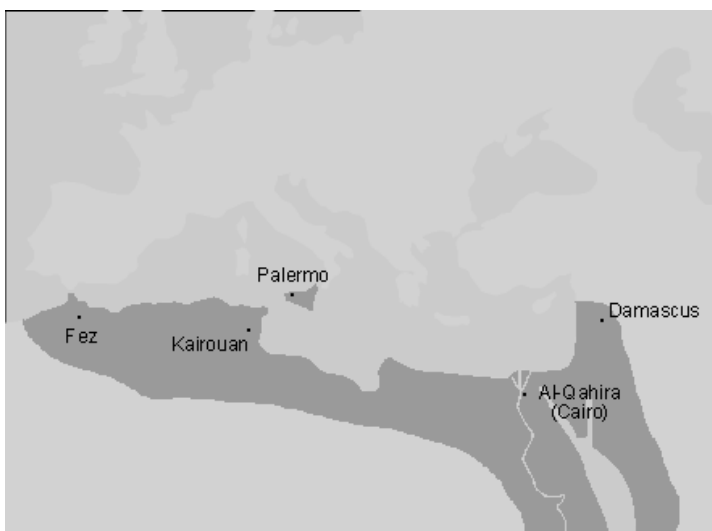
드루즈(Druze) 종파는 10~11세기의 이집트(Egypt)에 존속했던 이슬람 파티마 왕조의 여섯번째 칼리프인 알 하킴(Al Hakim)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킴은 당시에 새로운 이슬람의 종파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교리 개혁을 시도 하였다. 이 개혁운동은 알 하킴(Al Hakim)을 중심으로 함자 빈 알리(Hamza ibn Ali), 알 다라지(Nashtakin al-Darazi)에 의해 주도 되는데, 이 세명의 인물은 드루즈(Druze) 종파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알 다라지(Al Darazi)는 초기 드루즈 신학자로서 드루즈교리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드루즈(Druze)’ 라는 종파명도 다라지의 이름과 관련있는 것으로 여겨진다.<sup>14</sup>

드루즈 종파의 형성은 이집트 파티마 왕조의(Fatima Dynasty) 6번째 칼리프(Caliph)였던 알 하킴(Al Hakim, 985-1021)으로 시작된다. 알 하킴(Al Hakim)은

<sup>14</sup> P.353. J.A. HAMMERTON <Lands and people of the world>

996년(이슬람력 386년)에 11살의 나이로 권좌에 오르며 이슬람 교리 개혁 운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수니파와 이스말리 파등 정통 이슬람분파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알 하킴의 개혁안에 대해 많은 소수분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를 수용하였다. 알 하킴(Al Hakim)의 개혁안의 핵심은 노예제 폐지, 일부다처제 폐지, 모스크와 국가의 분리(정교분리)였다. 1021년 아직 드루즈교의 체계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 하킴은 사망했다.

알 하킴에 이어 드루즈 사상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함자 이븐 알리(Hamza ibn Ali)는 알 하킴으로부터 후계자로 지목받았다. 그는 대부분의 초기 드루즈 관련 문서를 서술하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드루즈 신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전인 헤크마(Book of Hekima)를 저술하였다. 또한 함자 이븐 알리는 드루즈의 신앙고백인 타위드(Tawhid)를 제정하고, 드루즈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을 규정하고 하킴과 자신이 세운 규율에 따라 드루즈 신앙의 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림 Ⅲ-2 파티마 왕조의 최대 판도>

드루즈역사에 있어 또 다른 중요인물로 지목받는 알 다라지(Nashtakin Al-Darazi)는 드루즈 역사에 있어 매우 모순적인 인물로서 드루즈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파내에서 이단적인 인물로 취급받았다. 다라지는 원래 알 함자 이븐 알리<sup>15</sup>의 제자였으나, 자신의 사상을 앞세워 제자를 받아들여 정치적인 힘을 키운뒤에 자신을 알 하킴을 포함한 다른 드루즈 지도자들 보다 높

<sup>15</sup> 다라지가 함자 이븐 알리의 스승이라는 설도 있다.

은 자리에 있다는 뜻으로 자신을 ‘선지자 중의 선지자’ (Guide of guides) 라고 선언한다. 다라자의 주요한 이단적 활동은 자신만의 교리를 만들어 ‘Darazis’ 라고 하는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게 함으로써, 함자 빈 알리가 제창한 드루즈의 규율과 타위드(Tawhid)를 훼손하고 모독하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다라지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자리에 대해 위협을 느낀 알 하킴에 의해 이단으로 몰려 1019년 처형되었다. 다라지 사후, 다라지파의 교리는 이전에 알 하킴과 함자 빈 알리가 세웠던 드루즈의 교리와 혼합된다. 지도자가 이단으로 몰려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라지파의 교리는 함자의 추종자들에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sup>16</sup>, 지도자격인 알 하킴마저도 다라지의 교리를 수용하여 지지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교리가 혼합되어 드루즈는 기존의 이슬람교와는 구별되는 나름의 독특하고 새로운 종파를 성립하게 된다<sup>17</sup>.

드루즈 종파는 지도자인 알 하킴의 죽음 이후 이들의 번성을 시기했던 정통 수니파 무슬림의 핍박을 피해서 이전에 그들의 전도자들이 종교 성립 초기부터 활동을 하며, 거주의 터를 마련해 놓았던 레반트(Levant)지역의 레바논 산맥(Mt. Lebanon)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다<sup>18</sup>.

## 2) 레바논 드루즈의 역사

레바논 산맥으로 이주한 이후 드루즈 종파는 맘루크(Mamluks)왕조와 오스만 투르크(Ottoman Turkey)왕조의 식민지배를 받았지만,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자신들의 종교와 삶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드루즈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기독교 분파인 마론파(Maronite)와의 갈등이 본격화 하면서 이 평화도 깨지게 된다. 당시, 제국주의국가로의 길을 걷고 있던 프랑스는 같은 기독교 종파인 마로나이트파<sup>19</sup>를 지원하며 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었다. 두 종파간의 간헐적인 전투가 이어지고 있던 1860년, 드루즈인들은 마론파를 기습하였다. 1860년의 전쟁에서 마론파에서만 11,000명이 사망하였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

<sup>16</sup> 어떤 학자들은 함자와 다라지가 동일인물이거나 다라지가 함자의 스승이라고 기록한다.

<sup>17</sup> 모순되게도 많은 연대 기술자들은 이전의 드루즈파와 다라지파 교리의 차이점을 기술하는데 실패하였다.

<sup>18</sup> <http://www.druzustudies.org/druzes.html>를 참고하였다.

<sup>19</sup> 동방 정교회의 분파로 John Maron 7세기경에 창시한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레바논의 주요 종파중 하나이다.

이 아사하였으며, 100,000명이 실종되었다<sup>20</sup>. 이 전쟁으로 인해 프랑스의 무력개입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후,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레바논의 드루즈는 자신들의 자치를 얻기 위해 맹렬히 싸웠지만, 결국 1946년 신생 레바논 공화국의 주요종파중 하나로 참여하게 된다. 드루즈는 1975년부터 벌어진 레바논 내전에서 카말 Jumblatt(Kamal Jumblatt<sup>21</sup>, 1916~1977)의 지도하에 팔랑헤(Phalanist)당<sup>22</sup>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했다. 레바논 내전이 종료된 이후 PSP<sup>23</sup>를 비롯한 국내의 각 종파가 모여서 차기 정부에 대해 합의한 1989년 타이프(taife) 조약<sup>24</sup> 이후, PSP는 내전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마로나이트파와 오히려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3) 시리아 드루즈의 역사

시리아가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던 17세기에 많은 수의 드루즈는 레바논에서 비옥한 땅으로 알려진 시리아의 하란(Hawran, 지금의 Sweida)으로 이주했다. 당시 스웨이다는 주인 없는 땅으로서 소수의 토착민만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드루즈인들은 별 저항없이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다. 드루즈는 스웨이다 지역을 개간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사과와 포도를 생산했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여 경제적인 힘을 키울 수 있었다. 드루즈인들은 자신들만의 자치정부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독자적인 정치제도와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자치정부를 수립하려는 시리아 드루즈의 오랜 노력은 1925년 일어난 시리아 대혁명을 거치며 구체화 된다. 혁명은 드루즈 종파의 아트라쉬(Atrash)가문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당시 가문의 리더였던 파샤 알 아트라쉬(Sultan Pasha Al-Atrash)는 전투를 주도했다.

1925년부터 1927년까지의 혁명전쟁은 결국 프랑스군의 승리로 끝나지만, 드루즈 종파는 정치적인 자치권을 얻고, 1949년 독재자 아빏 시샤클리(Abib Shishakli)

---

<sup>20</sup> 드루즈종파의 피해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sup>21</sup> PSP를 창당한 드루즈의 정치적 리더, 1977년에 암살당했다.

<sup>22</sup> 마로나이트파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정당. 레바논 내전에서 바쉬르 가말리엘(Bachir Gemayel)의 지도하에 전투를 벌였다.

<sup>23</sup> 레바논 사회 당(Progressive Socialist Party)의 약자

<sup>24</sup> 1989년에 정치권력을 각 종파에게 할당하기로 한 레바논 종파들의 합의이다.

가 집권 할때까지 시리아내의 가장 강한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었다. 1949년에 집권한 시샤클리리는 강력한 중앙 집권 통합정책을 사용하여 드루즈의 정치적, 경제적 힘을 빼앗는등 드루즈 인들을 억압하였다. 그의 강압적인 통치는 드루즈의 분리운동을 막았지만, 드루즈인들의 마음에 강한 분노와 자치에 대한 의지를 품게 하였다. 이러한 드루즈인들의 분노와 자치의 의지는 시리아 사회에 진출한 드루즈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들과 군인들에 의해 표출된다. 그들은 1954년의 군사쿠데타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들을 핍박하였던 시샤클리리를 몰라내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1963년까지 시리아는 종족정치 체제를 지키며 평온함을 유지했다. 이러한 정치체제하에서 드루즈는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력을 다시 회복하면서 시리아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게 한다. 알라위파<sup>25</sup>가 일으킨 쿠데타로 1970년에 대통령의 권좌에 오른뒤 비밀경찰에 의지한 철권통치를 시작한 아사드(Assad) 대통령조차도 시리아 사회의 기본골격인 종파 혹은 부족공동체를 무시할 수 없었고 종파별 특이성과 특별한 법들을 인정하는 정책을 채택 하며, 드루즈인들은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킬 수 있었다<sup>26</sup>.

#### 4) 이스라엘 드루즈의 역사

카펠지역에 거주해온 이스라엘의 드루즈는 맘루크왕조와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배하에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평화롭게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하며 살고 있었다. 그들은 2차 대전이후,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한 유대인들에게 협조하며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후, 이스라엘은 범아랍권과의 지속적인 전쟁을 치루었지만, 이스라엘의 드루즈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슬람의 분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전쟁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이스라엘 내에서 드루즈 종파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sup>27</sup>.

<sup>25</sup> 이슬람의 시아파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이다.

<sup>26</sup> Joshua Landis <Shishakli and the Druzes>를 참고하였다.

<sup>27</sup> . p.12 Nissim Dana외 공저 <The Druze in the Middle East>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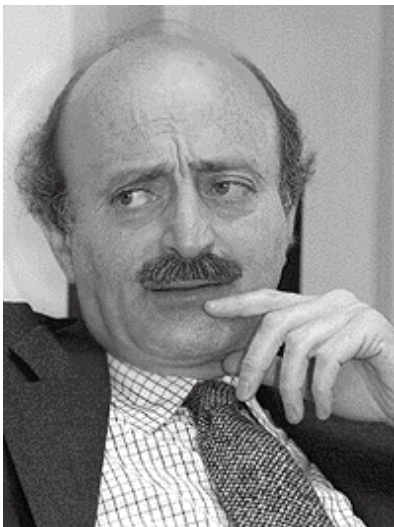
## 2. 정치분야

### 1) 개요

레바논 내전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떠오르며 맹활약한 왈리드 줌블라트(Walid Jumblatt)의 PSP를 제외하면, 현재 시리아와 이스라엘에는 공식적인 드루즈의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리아는 197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알라위파 정권의 독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수종파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시리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소수종파인 드루즈만의 정치세력 형성이 매우 어렵다. 이스라엘의 드루즈는 거주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분야에서는 레바논 드루즈만을 기술함을 밝혀둔다.

#### (1) 레바논 드루즈

현재 각국의 드루즈 종파중 가장 정치적 힘이 강한 세력은 레바논의 PSP이다. PSP는 1949년 카말 줌블라트<sup>28</sup>에 의해 창당되었으며, 국내에서 아랍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점령에 항의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75년 시작된 레바논 내전기간 동안에는 민병대를 조직하여, 마론파의 민병대인 팔랑헤당, 그리고 이후에 팔랑헤당에 흡수되는 레바논 우익당에 맞서 전투를 벌였다. 1977년 리더인 카말 줌블라트가 암살 당했지만, 그의 아들인 왈리드(Walid)가 후계자로 지명되어 리더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한 1983년 이후, 팔랑헤당과 PSP민병대는 서로의 시민

<sup>28</sup> 현재 PSP 당수인 Walid Jumblatt의 아버지.



들을 학살하며 그들의 거주지인 레바논 산맥에서 전쟁을 지속했다. UN의 중재로 1990년 전쟁이 끝난뒤에는 헤즈볼라(Hezbollah)<sup>29</sup>를 통한 시리아의 레바논 내정간섭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1989년에 레바논의 모든 종파가 모여서 헌법 개정에 합의한 타이프 조약<sup>30</sup> 으로 내각에 2개부처 장관과 국회의 8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 3. 경제분야

드루즈인들만의 특별한 산업은 없으며, 레반트(Levant)지역의 일반적인 경제활동과 비슷하다. 다만, 이들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골란고원(Golan Height), 스웨이다(Sweida) 지역에서 주로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드루즈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리아의 스웨이다(Sweida)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좋은 포도와 사과를 시리아내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도시에 거주하는 드루즈인들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며, 레바논의 레바논 산맥(Mt. Lebanon)지역은 여름철 피서관광객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숙박업과 같은 관광업이 발달되어 있다.

#### (1) 소득 격차

같은 드루즈인이라 할지라도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 소득 격차가 존재한다. 평균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국민소득 \$26,800)<sup>31</sup>에 거주하는 드루즈인들의 소득이 가장 높으며, 레바논(\$5,900), 시리아(\$4,100) 순서대로 소득격차가 있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을 달러로 환산하여

---

<sup>29</sup> 신의 전사들이라는 뜻으로써 레바논의 이슬람 원리주의 당. 2006년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sup>30</sup> 대통령은 마로나이트, 총리는 순니, 국회의장은 시아, 국방장관은 드루즈, 군 사령관은 마로나이트 종파에서 선출하기로 한 각 종파의 합의이다.

<sup>31</sup>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004rank.html>에서 인용하였다.

표시한 통계수치로써, 각국의 물가수준등 실제적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 (2) 실업률

드루즈인이 거주하고 있는 각국의 높은 실업률(시리아 20%, 레바논 18%, 이스라엘 9%<sup>32</sup>)로 인한 구직난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루즈인 역시도 그 영향에서 벗어 날 수 없으며, 드루즈 젊은이들에게도 취업은 가장 중요한 화제중에 하나이다.

# 4. 생활분야

## 1) 식생활

(1) 식사시간: 일반적으로 레바논과 시리아의 아침식사 시간은 9-10시, 점심식사는 오후 2-3시경이며, 저녁식사는 9-10시에 한다. 이스라엘은 건국이후 정착된 서구식 생활양식의 영향으로 보통 아랍 사람들 보다는 이른 시간에 식사를 하는 편이다.

## (2) 주식

아랍에서 흔히 먹는 전통식단과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호부스’<sup>33</sup> 라고 하는 빵을 중심으로, 요구르트인 레바니<sup>34</sup> 콩을 갈아 만든 호모스와 파타빵<sup>35</sup>, 닭으로 만든 햄, 피클, 절인 무, 올리브, 토마토 등을 먹는다. 때때로 구운 닭고기와 양고기를 먹기도 한다.

---

<sup>32</sup> 각주 24과 동일함

<sup>33</sup> 레바논 드루즈 마을에서는 ‘헤브스’, 이스라엘 드루즈 마을에서는 ‘호베스’ 또는 ‘드루즈 브래드’ 라고 한다.

<sup>34</sup> 치즈라고도 한다.

<sup>35</sup> 호부스와 비슷하지만 좀더 두꺼운 빵이다.



<그림 Ⅲ-3 아랍인의 주식 호부스>

- (4) 식음료: 드루즈인들은 손님이 오면 ‘아랍식 커피(Arabic coffee)’<sup>36</sup> 라고하는 커피(ahwa)를 놓는다. 이 커피의 특

## (5)

징은 매우 맛이 진하다는 것이다. 조그만한 에스프레소 잔에 아주 적은 양이 제공된다. 또, ‘샤이’ 라고 부르는 차를 대접하는데, 설탕을 많이 넣기 때문에 달콤한 맛이다. 마떼(Matte)<sup>36</sup>라고 부르는 차가 나오기도 하는데, 갈아놓은 찻잎을 물에 우려내 마시는 약간 쓴맛의 차지만, 현지인들은 이 차를 즐겨마신다.

## 2) 의복

### (1) 종교인 복장

드루즈인의 특별한 전통복장은 종교인인 아갈(uqqal)의 옷으로 알 수 있다. 종교인들의 전통복장 착용이유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악한 유혹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하여 영혼이 육체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도록 함이라고 한다. 또한, 전통 복장은 짙은 남색이나 검은색 계통인데, 이는 드루즈인들이 검은 색 계통의 색깔을 경건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남자 아갈은 공통적으로 입는 의복과 종교적 계급에 따라 달리 착용하는 의복이 있다. 어린 아갈은 하얀색 밴드만 머리에 감는다. 이 어린 우칼이 성장하면, 케피아(Kefita)라고 불리는 흰색 두건을 쓰고 아갈(agal)로 머리에 고정을 한다. 이후, 종교적 계급이 올라가면 모자위는 자주색으로 되어있는 라피(Lafi)를 쓴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밴드만 둘둘 감고 다니기도 한다.

<sup>36</sup> 마떼는 본래 남미가 원산지인 마떼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마시는 차를 말한다.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며, 손가락같이 생긴 독특한 모양의 빨대로 마신다.

장로의 계급에 올라가면 이마에 줄을 두르고, 구근 모양의 터번을 쓴다. 모든 아랍 남자는 공통적으로 독특한 모양의 ‘셰르엘(Sherwal)’ 바지를 입으며, 머리는 삭발을 하고 콧수염을 기른다. 겨울철에는 ‘파르위’라고 하는 양털과 사슴가죽으로 된 외투를 입는다. 여성들은 검은색 계통의 치마와 블라우스를 착용하며 맨딜(Mandeeel)이라는 흰색의 얇은 스카프를 머리에 써서 머리카락과 입을 가린다<sup>37</sup>.



<그림 Ⅲ-4 드루즈 종교인의 복장>

### 3) 주거

드루즈인의 집에는 마다파(Madafa)라고 불리는 응접실이 발달했다. 응접실의 벽면을 따라 쇼파와 같은 의자가 붙어 있으며 중앙에는 실내 난방을 위한 난로가 설치되어 있다.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다. 보통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이지만, 주인이 허락했을 경우 신발을 신고 실내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사회적, 환경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가옥 외부 형태의 차이점은 있지만, 드루즈인만의 특징적인 가옥 형태는 없다.

<sup>37</sup> 스웨이다(Sweida)의 유시프(Joseph) 목사님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 5. 사회분야

### (1) 개요

드루즈는 가문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종파로써 결속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파 외부사람과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전통과 신앙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 그렇지만, 타 종교의 관념이나 교리에 대해 수용하지는 않아도 인정을 해주는 관대함을 지니고 있다. 타 이슬람 사회에 비해 남녀 평등도가 높은 편이며, 여성의 의견도 가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이 반영되는 편이다.

### 2) 가족구조

20-30년 전만하더라도 많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일반적인 드루즈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수가 평균적으로 2-4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드루즈는 가족공동체가 한 마을에 거주하면서 집촌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 학업등의 이유로 도시에 나갔다가도 농촌으로 돌아오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가정의 경제권은 가장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만, 집안의 살림은 어머니가 책임진다. 혼인 등의 가정 중대사 결정시에는 보통 아랍가정과 다르게 가장인 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같이 결정을 내린다. 드루즈는 일부일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타 종파와의 혼인은 드루즈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 3) 종족 공동체 구조

드루즈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아깁(uqqal)과 주할(juhal-무지한 자)로 나뉜다. 아깁(uqqal)은 종교 헌신자로서 남자는 셰크(Shake), 여자는 셰카(Sheka)라고 불린다. 모든 드루즈는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자신의 역할을 선택해야 한다. 우칼이 되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先輩) 우칼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드루즈인의 회당인 마즐리스를 출입할 수 있다.

종교인이 되면 술, 담배, 낫선 이성등 내면적인 신앙 정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부의 방해요소를 멀리하며 자신을 경건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드루즈의 경전인 헤끄마(Hikma)를 읽고 의미를 깨닫고 가르치며, 마즐리스에서 드루즈의 교리에 대해 강론하기도 한다. ‘아깁’ 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종교적인 활동에서만 구별될 뿐이다.

주할(juhal)은 종교인과는 다른 일반 드루즈 인으로써, 경전인 히크마를 직접 읽을 수는 없지만, 우칼을 통해 히크마의 내용을 들을 수있다. 이들은 마즐리스 출입이 금지되며 일년에 한 두번씩 명절때만 마즐리스에 출입할 수 있다. 우칼과 주할의 구분은 단지 이들이 종교인의 역할을 맡고 있는가의 여부로 하는 것이고, 순전히 개인의 선택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 4) 주변 종족 및 이웃과의 관계

##### (1) 주변 종족간의 관계

드루즈 인들과 타 민 족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각 국가의 드루즈인이 처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아야한다. 같은 드루즈 종파라 하더라도 국가별, 지역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타종파와의 관계도 다른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 1) 시리아 드루즈

현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알라위(Alawite)와는 73년 중동전쟁이전, 관계가 좋지 않았으나, 전쟁을 같이 치러내면서 멀어졌던 관계를 개선했다. 그렇지만, 63년 군사쿠테타로 인한 배신을 당했던 기억이 남아있어서 인식이 좋지 않다. 시아(Shiah)와 무슬림들과의 관계는 좋지만, 순니(Sunni)와<sup>38</sup> 무슬림에게는 자신들을 핍박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경계한다. 비록 이들이 타종교를 미워한다 하여도 드루즈(Druze)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오히려 소수인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겉으로는 다수 종교의 신자인양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골란 땅을 뺏어가고, 같은 무슬림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

---

<sup>38</sup> 이슬람의 가장 큰 종파이다.

## 2) 레바논 드루즈

1975년에 시작된 레바논 내전기간 동안 민병대를 조직하여 인근 지역의 마론파 기독교 민병대와 분쟁을 벌였었다. 내전 초기에는 이슬람 진영에 가담하였다가, 이후에는 정치적 이유로 헤즈볼라나 다른 이슬람 민병대와 전투를 벌였다. 내전 이후 표면적으로는 모든 종파들이 갈등을 최소화 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처럼 보이지만 저변에 깔려있는 긴장감을 엿볼 수 있다. 내전이후 드루즈는 마론파와 연합하였으며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는 마론파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 이스라엘과는 전쟁이후로는 헤즈볼라와 시아파 무슬림과 관계가 좋지 않다.

## 2) 이스라엘 드루즈

이스라엘 드루즈가 거주하는 하이파 지역에는 유대교인, 기독교인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곳의 드루즈 인들은 타 종교인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잘 어울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간의 대화주제로 종교는 민감한 주제이다. 한편, 이스라엘의 드루즈인들은 이스라엘 건국때부터 유대인들을 지지해왔고 일부 사람들은 혈통상 구약에 모세의 장인으로 등장하는 ‘이드로’가 드루즈인이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드루즈는 유대인에 친근감을 느끼는 반면, 무슬림에게는 호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67년 ‘6일 전쟁<sup>39)</sup>’에 의해 이스라엘에 살게 된 골란지역의 드루즈인들은 오히려 유대인에게 반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 5) 사회적 모임

## (1) 공식단체

현재 밝혀진 드루즈의 공식 단체는 레바논의 PSP<sup>40)</sup>가 유일하며, 드루즈인의 정치 참여를 막고 있는 시리아에는 공식적인 단체가 없다. 이스라엘에도

---

<sup>39)</sup>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이집트를 상대로 싸운 전쟁. 제 3차 중동전쟁이라고도 하며, 이 전쟁으로 인해 시리아는 골란고원을, 이집트는 시나이반도를 이스라엘에게 강탈당했었다. 이집트는 시나이반도를 돌려받았지만, 시리아는 골란고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sup>40)</sup> 레바논 사회주의 진보당(Progressive Socialist Party)

드루즈인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 단체는 없다. 각 국가 별로 레바논의 PSP를 제외한 공식 단체는 없지만, 마을 별로 축구와 같은 체육활동 모임, 사고 모임등의 비공식 단체는 활발히 활동중이다.

## 6) 현재 이슈

정치적으로는 시리아-이스라엘 간의 골란 고원 반환 문제, 레바논 헤즈볼라의 대 이스라엘 전쟁이 주요한 이슈지만, 일반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신들과 밀접한 삶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다. 특히, 각국의 드루즈 청년들에게는 취직이 주요한 관심사이다. 이 지역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 7) 여성의 역할

일반적인 이슬람 사회의 분위기와 다르게 드루즈는 남녀가 비교적 평등하다. 여성의 사회 진출도 자유로운 편이며,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드루즈내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다. 가문의 지도자들은 가문의 여성들이 현명한 어머니와 아내가 되기를 바라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도 늘어가고 있다.

## 8) 사법체계

드루즈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사법체계를 따르지만, 민법에 관련된 이혼, 유산상속과 같은 민사사건이 생길 경우 드루즈 종교 재판소에서 민사법정이 열린다. 드루즈 인을 위한 법정을 마카미 맛다 하비(Makabi Mada Habi)라고 하는데, 일반 법원과 따로 존재하는 건물이 아니라, 법원 건물을 사용하여 이루어 진다. 이 때 판결을 맡을 판사를 국가에서 지정해주는데 이 드루즈 판사를 까달 마다합(Kadal Madahab)이라고 한다. 까달 마다합은 드루즈 법에 정통하고 일반 법도 잘 알고 있는 셰크중에 한명이 맡는다. 변호사는 셰크일 필요가 없고 일반 변호사여도 자격요건이 갖추어 지지만, 드루즈법을 잘 알아야 유리하다.

법정에 회부될 만한 큰 일이 아닌 사소한 사건에 재판이 필요할 경우 셰크야끌이 이 사건을 판결하는데, 이 때,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셰크 까데(Sheke Kade)라고 한다. 이들은 드루즈 교리에 관련된 일을 판결하기



도 한다<sup>41</sup>.



<그림 Ⅲ-5 드루즈 법정>

## 6. 문화분야

- 1) **개요:** 문화적 특성 드루즈 인이 거주하고 있는 레반트(Levant)지역은 예로부터 동서의 교통로로 각광을 받으며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을 비롯해 역사의 무대가 되어 왔다. 여러 민족이 이 땅을 정복하고 패망하면서 여러 민족의 문화가 섞여 독특한 문화가 창출되었다. 그 뒤,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지역의 문화는 이슬람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드루즈인 역시도 자신들만의 독자 문화를 가지지 못한 채 아랍문화에 많이 동화되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정체성인 종교분야에서는 드루즈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 2) 결혼

드루즈인의 결혼 문화는 이슬람 결혼 문화의 형태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편이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결혼으로 이는 결혼당사자인 남녀의 의사보다는 양

---

<sup>41</sup> 스웨이다(Sweida)의 유시프 목사님 인터뷰 결과.

측 가문의 정략결혼의 형태가 많다. 하지만 일부 일처제는 이슬람<sup>42</sup>의 혼인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드루즈의 특징이다. 그렇지만, 배우자 선택은 드루즈 인사이에서만 가능하고 타 종파 사람과 결혼 할 경우, 드루즈 사회를 떠나야하는 것은 물론, 죽음의 위험<sup>43</sup>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보통 약혼식 이후 약 2년간의 기간을 두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며, 결혼식은 가문 단위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적으로 드루즈인의 결혼은 신랑 신부 양측 가문의 대표자로 각각 1명씩 최고지도자격인 셰크 아끌(Shake Uqqal)에게 나 오고, 셰크 아끌이 허가서를 써주면 성립된다. 결혼식에 있어서, 신랑측 가문 및 신부측 가문의 규모에 따라 결혼식의 규모가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3일, 길게는 7일까지 결혼식을 한다. 결혼식에는 양 가문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므로 규모가 큰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이 모이기도 한다. 일반적인 경우, 결혼식은 보통 집에서 거행되며 집 앞의 공터나 넓은 마당을 이용한다. 먼저 신부가 화려한 드레스와 화장으로 단장을 하고 준비를 끝낸 뒤, 신부측 하객과 함께 모여서 결혼식을 위해 신랑집으로 이동한다. 신랑 집에서는 미리 가족들이 모여 음식과 장식 등의 결혼식 준비를 한다. 신부 측이 신랑 집에 도착하면 양가가 일일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인사를 나눈다. 일부 손님들은 함께 돌아가면서 축복의 시를 읊는데, 이 때는 음을 붙여서 노래하듯 큰 소리로 함께 읊는다. 함께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고, 일부 남자 어른들이 방에 모여앉아 기도와 같은 식을 진행한다. 밤이 되면 춤을 추고 함께 들기며 축제를 벌인다<sup>44</sup>. 드루즈 종교인인 우칼의 결혼식은 일반인의 결혼식과 조금 다르다. 종교인의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 모두 드루즈 종교의상을 입고 초대된 손님들도 모두 종교의상이나 무채색의 옷을 입는다. 손님들은 일반의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많은 손님이 오지만 음악과 춤을 동반한 파티는 생략되며 외부인들에게는 철저히 비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우칼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칼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할과의 결혼도 가능하다<sup>45</sup>.

<sup>42</sup> 무슬림 남성의 경우 아내를 네 명까지 맞이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sup>43</sup> 드루즈 법에 따르면, 타 종파 사람과 결혼할 경우 결혼 상대자인 타 종파 사람을 돌로 쳐 죽어도 된다고 나와있다.

<sup>44</sup> 드루즈만의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아랍 민족의 결혼식 모습 중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sup>45</sup> 각주 33 참고

### 3) 장례

환생설을 믿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드루즈인지만 죽음은 슬픈일이라고 여겨 장례행사를 치른다. 드루즈인이 죽으면 그 날 곧바로 장례행사를 치르는 것이 원칙이며 늦어도 다음날로 미루지 않는다<sup>46</sup>. 시체는 깨끗이 씻어 정결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죽은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다. 드루즈인의 장례식장은 매우 특이한 형태를 가진다. 장례식장은 원형 경기장의 모습을 닮고 있으며 중앙에 죽은 자를 놓는 제단이 있다. 누군가가 죽으면 그의 시체를 중앙단에 놓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유가족들을 위로한다고 한다. 장례는 드루즈 종교지도자가 주관하는데, 그는 장례식에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며 다음 생을 위해 복을 빌어준다.

### 4) 예절

#### (1) 인사법

시리아와 레바논이 속해있는 아랍어 문화권에서는 어디서나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먼저 인사할때는 ‘마르하반’이라고 하며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면 된다. 또한 남성에게는 ‘케이팍’ 여성에게는 ‘케이픽’이라고 인사할때도 있는데 이는 영어의 ‘Hi’에 해당하는 인사 말이다. 특별히 아랍권에서는 친밀한 동성 사람끼리는 서로 볼을 맞대고 볼마다 키스를 한번씩 하는 인사방법이 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한다.

#### (2) 일반예절

일반적으로 노인과 같은 연장자, 종교 지도자등을 존경한다. 이들과 인사할 때는 앉은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이다. 가족 이외

---

<sup>46</sup> 다수의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다.

에 다른 사람을 집에 초대할 때는 보통 커피를 제일 먼저 주는 것이 예의이다. 커피를 대접한 뒤에는 차와 다과를 대접하며 응접실에서 한동안 대화를 나눈다. 만약, 주인이 커피를 한번 더 권할 경우, 그것은 이제 집을 나가 달라는 완곡한 거절의 표시이므로 집을 떠나는 것이 좋다. 외국인을 가정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주인이 초대한 사람은 가정의 일원 혹은 친구로써 가족에게 받아들여진다.

### (3) 종교예절

드루즈인의 종교적 장소(마즐리스, 무캄)에서 정숙을 유지하는 것과 여성은 하얀색 천(멘딜)을 써야한다는 것은 여느 무슬림과 같다. 조금 다른 것은 종교인을 배려하는 예절이다. 드루즈의 종교인인 셰크와 두번 입맞춤을 하는 자신들만의 인사를 한다. 종교인인 아깁은 가족이 아닌 이성 사람과는 악수와 같은 신체적 접촉은 물론 대화조차도 할 수 없으며, 옆에 앉거나 나란히 서는 것도 피한다.

## 5) 교육열

드루즈인은 교육열이 뜨거운 사람들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기를 원한다. 최근에는 많은 수의 드루즈 학생이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로 유학을 떠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시리아에서는 다마스쿠스 대학에 기부금을 내고 입학 할 수 있는 ‘기여입학’도 존재한다<sup>47</sup>. 한편, 이스라엘 골란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고향에서 직장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른바 고학력 실업자가 많다.

## 7. 종교분야

### 1) 개요

(1) 지역과 종족에 분포해 있는 종교일반 상황, 개관

드루즈는 이슬람 시아파의 한 분파로 그들 스스로 소수종파라는 의식이 강해 외부의 탄압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높은 산지 혹은

---

<sup>47</sup> 시리아 골란 하다르(Hadare)마을에서 인터뷰한 Kamir씨의 둘째딸의 사례이다.

변두리에 모여서 거주하며 드루즈 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을 거부하는 것 외에도 소수의 종교적 리더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1000년 가까이 그들의 종교적 특징을 고수하고 있다.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드루즈이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정체성과도 같은 드루즈 종교에 대하여 4번의 현장조사와 인터뷰, 문헌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통합하여 서술하겠다.

## 2) 종교현황

### (1) 종교시설

드루즈(Druze)의 종교시설은 규모와 목적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 ① 마즐리스(Majleass)

마즐리스는 아랍어로 앉는 곳이라는 뜻의 드루즈인들이 기도하는 드루즈 회당으로 외형상으로도, 내부 출입상으로도 은폐되어있다. 외형상으로는 모스크, 교회건물과 같이 눈에 띄는 건물외관구조가 없이 일반 가옥과 다를 바가 없어 식별이 쉽지 않고 내부 출입상으로는 드루즈라도 아깁(지식인)<sup>48</sup>만 갈 수 있고 주할은 교리를 정식으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즐리스에 출입할 자격이 없고 명절 때만 마즐리스 중에서도 바깥 큰 방에만 갈 수 있으며 그 외의 곳은 아깁만 갈 수 있고 주할에게는 금지된다.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셰이즈 마즐리스라고 부른다.



<sup>48</sup> *al-ʿUqqāl* (عقال), **Akils** (or 'Aqls / 'Uqqal)

### < 그림 Ⅲ-6 드루즈인의 종교모임 장소 마즐리스 >

#### ② 무캄(Moukam)

아랍어로 무캄(Moukam)은 무덤이란 뜻이다. 따라서 그 자체가 무덤이란 단어이며 내부에 선지자나 성인, 또는 종교적 학문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모여져 있다. 출입여부는 중요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카멜의 선지자 무덤은 관리자가 따로 있어 문을 열어주고 허락해 주어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시리아에서 종교학문적으로 업적이 뛰어난 셰크 압둘라의 무덤은 관리자가 따로 없이 항상 열려있으며 드루즈인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누구든 들어갈 때 긴팔 옷에 머리를 가리고 들어가야 하며 모자가 달린 겹옷이 준비되어있기도 하다. 무덤 안에는 드루즈 별과 선지자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으며 어떤 경우 이슬람 경전인 꾸란이 놓여있기도 하다. 이것은 드루즈 경전인 헤끄마는 아무나 볼 수 없는 특성과 함께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외부인에게 자신들을 무슬림과 동일시 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대체적으로 무덤이 안치된 본 건물 외에 넓은 야외 공간과 함께 잘 지어져 있어 성지순례 정도로, 혹은 가까운 마을의 경우 소풍차 함께 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간다.



<그림 Ⅲ-7 드루즈 종교인의 무덤, '무캄'>

### 3) 예절

#### ③ 칼루아(Khalwa)

칼루아는 아깁들의 종교적 교리 교육장소이며 기도 장소이다. 방학 때는 아깁이 되기로 한 어린아이들이 교회의 성경학교처럼 교육을 받기도 한다.

##### (1) 종교인

드루즈는 크게 아깁(Uqqal)<sup>49</sup>과 주할(Juhal)로 나눌 수 있다. 아랍어로 지식인이란 뜻의 아깁은 종교에 입문한 자로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성적 유혹을 멀리하며 입에 나쁜 말을 담지 않겠다는 서약과 일정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아깁은 헤끄마와 드루즈 교리를 배우고 종교적 장소,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아랍어로 주할은 무지하다는 뜻으로 아깁이 아닌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 헤끄마를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종교적 교리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아 드루즈 종교에 대해 백만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sup>50</sup> 그러나 아깁과 주할은 계급의 개념은 아니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깁이 되려면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단절해야 하고 높은 지위의 아깁에게 시험 받아야 하므로 점점 아깁을 선호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또한 보통 나이 많은 아깁이 많은데 그 이유는 주할로 살다가 노년에 아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아깁은 입는 옷이 정해져 있어 주할과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아깁은 반드시 검은색이나 남색의 긴 팔 옷을 입으며 여자 아깁은 발목을 가릴 정도의 긴 원피스를 입고 흰색 천을 머리에 쓰고 입을 가려지게 한다. 남자 아깁은 셰르왈(Sherwal)이라는 오트만 왕조때의 터키 의상과 유사한 바지를 입으며 콧수염을 기르고 흰색을 천이나 모자를 쓰는데 머리는 삭발한다.<sup>51</sup> 그리고 남자 아깁이 머리에 쓰는 것은 아깁 내의 계급에 따라 다른데 1단계는 흰색 밴드를 착용, 2단계는 흰색 천에 검은 띠, 3단계는 라피라는 둥근 통, 그리고 더 높은 단계는 둥그란 터번을 쓴다.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턱수염을 기르는 경향이 있다. 이 계급 체계는 드루즈(Druze)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진보를 통해 더 높아지며 매우 비밀스러운

<sup>49</sup> 지난 1호부터 3호까지의 선교지역연구보고서에서 우칼로 통일되었던 'uqqal'의 발음이 아깁이라고 한다.

<sup>50</sup> 시리아 골란 하다르 마을에서 카밀씨의 인터뷰에서

<sup>51</sup> <http://www.mideastweb.org/druze.htm>

것으로 취급

받는다.

\*히크마(HIKMAH)

히크마(HIKMAH)란 ‘지혜의 책(book of wisdom)’이라는 뜻을 가진 드루즈만의 독특한 경전이다. 드루즈교의 창시자중 한명인 함자 이븐 알리(Hamza-Ibn-Ali)가 썼다고 하며<sup>52</sup> 5권으로 구성<sup>53</sup>되어있다. 히크마는 ‘기타빌 히크마’와 ‘리사일 히크마’ 두종류로 나뉘며 기타빌 히크마가 함자 이븐 알리가 쓴 책이며 드루즈 중심 경전이다. 히크마는 필사본으로 전승되며 필사본의 원고들은 1017-1043년 사이에 쓰여져서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필사본은 30여종 정도 되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가지의 필사책만 인용한다고 한다.

책은 드루즈 믿음에서 말하는 한 사람의 존재의 구성요소인 지성(mind), 영혼(soul), 말씀(word), 의지(will), 행동(actualization)의 다섯가지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지성’은 생각하는 능력, ‘영혼’은 느끼는 감정, ‘말씀’은 신성함과 물질의 중계자, ‘의지’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 ‘행동’은 선택하여 명백해진 의지 혹은 행동을 뜻한다. 이러한 다섯 의미와 관련하여 구원관, 마지막 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결혼, 자녀, 인간관계 등과 같은 삶의 실질적인 내용 또한 풍부한 예시들과 함께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뿐 아니라 책의 본질적 내용들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묵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히크마를 통달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 중 높은 경지까지 이해한 소수의 사람은 드루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진다고 한다.

이 책에 쓰여있는 내용은 드루즈 교리상 종교인인 아깁만이 직접 읽을수 있고 주할은 아깁에게서 배우는것만 가능하다. 그러나 드루즈 교리 자체가 비밀스러우며 아깁이 주할에게 히크마에 나오는 내용을 가르치는 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외부인에게는 철저히 책의 내용이 감추어져 오고 있으며 안다 하더라도 드루즈 사람들이 숨기기 위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일뿐 히크마의 핵심 진리는 알수없다. 이것은 약 1000여년간 드루즈 자신들만의 신앙과 전통을 변화없이 잘 지켜낼수 있었던 핵심 근거라 할수있다. 그러나 본 훈련팀이 시리아 드루즈 리서치를 하던중 시리아 국립도서관인 아싸드 도서관에 히크마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sup>54</sup>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보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요즈음은 집집마

---

<sup>52</sup> 그 후 알 다라지(Al Darazi)에 의해 변형되었다는 설이 존재한다.

<sup>53</sup> 원래 6번째 책도 있었으나 고대에 이집트에서 드루즈가 박해받아 다른곳으로 이동할 때 사라졌다는 설도 있다.

<sup>54</sup> 본 훈련팀의 조사에 따르면 스웨이다 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유시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히크마와 아싸드 도서관에 있는 히크마, 인터뷰 조사에서 알게된 집집마다 소장하고 있는 히크마는 드루즈 중심 경전 ‘기



다 히크마가 있는편이라는 사실도 인터뷰<sup>55</sup>를 통해 조사되었다. 그러나 집, 도서관 등에 있는 히크마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히크마라고는 확신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이 진짜 히크마와 어느정도 다른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 \*구원관

드루즈는 영적으로 완전해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천국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할것이라 생각한다. 천국과 지옥은 한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난 착한일과 나쁜일을 저울질함으로 주어지며 만약 착한일이 나쁜일과 같거나 많다면 천국으로, 그렇지 않다면 지옥으로 가게된다. 이러한 저울질은 신의 곁에 있는 다섯명의 선지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섯명의 선지자는 각각 다섯가지 색깔과 그것에 연결된 다섯가지 의미를 가지고 한영혼씩 심판한다.

세상의 마지막날이 시작되는 순간 전 세계의 출생은 멈추게 되고 심판은 15년동안 전 인류를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심판의 기간이 15년인 이유는 마지막 날이 시작할 때 태어나는 아기들이 심판하는 다섯 명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총 생애에 대해 변론할 수 있을정도로 충분히 자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한 영혼의 온 생애를 종합하여 판단받는 이유는 특정생애나 순간을 판단 받는다면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선지자

다섯명의 정해진 자들 <sup>56</sup>	교리	색
함자 이븐 알리 <sup>57</sup>	아끌(AaKkel) - 지성, 이성	녹색
이스마엘 타미미 <sup>58</sup>	네페스(Nefis) - 정신	적색
무함마드 븐 와히브 까리쉬 <sup>59</sup>	알 켈리마(Al Kelima) - 말씀	황색
카이르 살라무후 알 사미리 <sup>60</sup>	앗 싸비크 <sup>61</sup> (A' Ssabikk) - 관례( '신앙의 보호' 역할)	청색

타빌 히크마가 아닌 '리싸일 히크마'라고 생각된다. 기타빌 히크마와 리싸일 히크마의 차이는 추측컨데, 무슬림의 경우 코란외에 '하디스'라는 무함마드 언행록을 경전의 수준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기타빌 히크마는 드루즈 중심 경전이고 리싸일 히크마는 이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다른 책인 것으로 여겨진다.

<sup>55</sup> 2008.1.7 모가르밀 마을 호다(hoda) 약 30대 후반

<sup>56</sup> Kamssa Hudud(아랍어 발음표기) – Kamssa는 '5', Hudud는 '정해진자'라는 뜻이다.

<sup>57</sup> Hamza Bin Ali Bin Ahmad

<sup>58</sup> Abu-Ibrahim Ismail Bin Mohammed al-Tamimi

<sup>59</sup> Abu-Abdallah Mohammed Bin Wahab al-Qurashi

<sup>60</sup> Aba-al-Khair Salama Bin Abdel-Wahab al-Samurri

알리 븐 아흐마드 사무끼 <sup>62</sup>	앗 탈리 <sup>63</sup> (A' talli) - 내재( '비밀의 보호' 역할)	흰색
-----------------------------	--	----

위의 표에서 보느바와 같이 다섯명의 정해진 자들(Kamssa Hudud)은 드루즈 최초의 선지자들이며 교리의 핵심을 이룬다. 이들은 알라와 그의 예배자들을 이어주는 수단이며 아랍어로 ‘방법,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진 와 사이뜨(Wassaidd)<sup>64</sup>라고 불린다. 이들은 전도의 지도자들이었으며 드루즈 사람들은 이들을 지혜의 근원이라고 본다. 또한 알라로부터 오는 은혜의 열쇠이며 자비의 통로라고 생각한다.

이들 다섯명은 순서가 있다. 즉, 완전한 이성이라는 개념에서 참된 정신이 나오고 참된 정신에서 권위있는 말씀이 나오고, 말씀에서 과거(믿음의 보호)의 개념이 나오고 과거에서 미래(비밀의 보호)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순서와 함께 위 표에 나와있는 다섯명도 차례대로 순서를 가지게 된다.

이들 중 맨 처음에 등장하는 함자 이븐 알리는 5명의 선지자들 중 가장 핵심적 인물이며 까임 알 자만(KKAem al jaman)이라고 불린다. ‘까임 알 자만’이란 ‘시대에 서있는자 혹은 오래전부터 존재한자’라는 뜻으로 맨 처음 사람 즉, 아담 이전의 사람이란 의미이다. 드루즈 사람들은 함자 이븐 알리는 혼란스러워 했던 한 인간 아담 전부터 이미 존재했으며, 완벽한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일신에게로 인도한다고 믿는다. 또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원리처럼 함자 이븐 알리는 이성이고 이성이 곧 함자 이븐 알리라고 믿는다. 함자 이븐 알리는 다른 네명의 후두드가 정해진 원인이되며 기타빌 히크마를 쓰고 소유한 자라는 특권을 가진다. 따라서 리싸일 히크마에는 함자 이븐 알리를 제외한 나머지 네명의 후두드들만이 나온다. 다른 네명의 후두드들은 이때 함자 이븐 알리를 더한 구원의 개념을 함께 전파하던 사람들이다<sup>65</sup>. 두번째 후두드인 이스마엘 타미미는 함자 이븐 알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일신에 함자 이븐 알리를 더한 개념의 전도를 시작한다.(번역본이 도착하는대로 계속해서 덧붙일 것 같습니다.)

모든 드루즈들은 유일신의 개념과 함자 이븐 알리<sup>66</sup>와 네명의 다른 후두드들을 인정해야만 하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들 후두드는 구원을 받기

61 ‘싸비끄’는 아랍어로 ‘전의, 과거’라는 뜻이다.

62 Abu-al-Hassan Baha al-Deen Ali Bin Mohammed al-Taii

63 ‘탈리’는 아랍어로 ‘다음의, 미래’라는 뜻이다.

64 이전 10,11,12기 보고서에는 모두 ‘아사위드(Asawid)’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이것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다.

65 이들은 유일신의 ‘빛’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 빛은 양초의 빛과 연관이 있다. 먼저, 이 양초의 의미는 친절과 발견이며 친절은 양초가 탈 때 발하는 빨간색 빛 안에 내포되어 있고 이 것은 함자 이븐 알리를 나타내는 것이란 설이 있다.

66‘까임 알 자만’의 개념

위한 방법이자 수단<sup>67</sup>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마지막날 다섯명의 후두드는 심판을 주관하고 이들에 의해 구원이 결정된다. 이것은 알라가 부여한 권위기 때문에 알라도 침범하지 않는 권위라고 한다.

#### \*드루즈 상징

##### + 드루즈 별

색	의미
녹색	지성, 이성(intelligence/reason)
적색	영혼(soul)
황색	말씀(word)
청색	관례(precedent)
흰색	내재(immanence)



<그림 Ⅲ-8드루즈를 상징하는 드루즈별

##### +숫자 ‘5’

드루즈를 이해하는데 있어 숫자 ‘5’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먼저 드루즈의 뿌리가 되는 후두드는 5명이며 이들이 전파한 교리의 핵심적 의미와 그에 따른 색도 각각 5개씩 있다. 세상의 마지막날 모든 영혼을 대상으로 심판하는 심판자도 이 다섯명의 후두드들이며 각각 맡고 있는 교리를 기준으로 심판하게 된다. 드루즈 사회에서도 이러한 다섯가지색과 관련하여 장식품을 만들거나 그림<sup>68</sup>을 그리기도 하고 또한 어떤 중요한 일이 결정되어야 할 때 다섯명의 높은 아랍들에게 자문을 구한다고도 한다.

##### + 송아지

드루즈 교리 내에서 송아지는 세상의 부정적 힘을 대표하는 중심상징으로 여겨지며 또한 이것은 무함마드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함자 이븐 알리 이후 드루즈내부의 통합운동<sup>69</sup>이 있었을 때 무함마드를 송아지로 여기는 풍조가 생겨났고 한다. 드루즈인들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송아지와 동일시 시키고

67 와 싸이트

68 본 조사팀의 관찰조사에 의하면 종종 드루즈 마을에서 다섯마리의 말이 그려진 그림을 볼수 있었는데 다섯마리의 말 뒤에는 각각 다섯가지의 드루즈 색깔을 발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말로는 말은 그다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안한다고 했다. 본 조사팀이 추측컨데, 그러한 그림은 단지 드루즈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 같았다.

69 드루즈 기원부분 참고

사단(evilness<sup>70</sup>)이라고 부른다. 송아지 머리를 무함마드의 머리라 생각하고 송아지 머리뼈 안에 히크마를 넣어 두는 풍습도 있었는데 지금은 별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

#### \*환생설

드루즈는 환생을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전 세계 인구의 수를 정해놓으셨으며 그 인구는 태초때부터 지금까지 고정되어있다고 믿는다. 처음 정해진 전 세계 인구의 수는 히크마에 정확한 숫자로 기재되어있으며 남녀의 비율은 정확히 절반씩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죽게되면 그 영혼이 9개월 된 태아<sup>71</sup>에게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방식으로 세상 마지막날까지 죽음과 환생을 거듭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구의 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드루즈 사람들 중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며 전생뿐 아니라 그 두번째 전생까지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다<sup>72</sup>.

드루즈의 환생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공정(equity)’ 이다. 인생이 한번뿐이라면 그 한영혼의 선과 악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여러 육체로 다시 태어나고 다양한 환경을 거치면서 마지막 날 그의 전 생애를 종합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 받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환생한 삶들을 회계했을 때 동일한 부와 연수를 살고 동일한 가난과 아픔을 겪음으로써 절대적 평등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환생설은 드루즈 사회 내부에서 긍정과 부정의 영향력으로 나타난다. 드루즈인들은 환생을 이유로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것은 전쟁에서 용맹함을 가짐으로써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의 내전과 어려움을 가운데 지금까지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환생을 거듭하므로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인생이 한번뿐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다음생애를 기대하며 이생의 삶을 허

---

70 이때 evilness는 아랍어로 압+레이사로 나타내며 ‘압’은 ‘아빠’, ‘레이사’는 ‘없는’이란 뜻으로 이에 따라 무함마드를 ‘아비없는자식’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71 MFR 10기 보고서와 본 조사팀이 인터뷰한 유시프 목사님은 드루즈 환생설은죽은 영혼이 9개월된 태아의 본체로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것이라고 했으나 MFR 12기 보고서에는 드루즈인인 하싼과의 개인적 인터뷰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죽은영혼이 그 본체로 들어가 다시태어난다고 했다. 외국에서는 9개월째에 출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말이 다를뿐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은영혼이 다시산다’는 원리는 동일함 밝힌다.

72 MFR 11기 레바논 리서치때 자신의 두번 전생을 기억하는 청년을 만났으며 MFR 12기 이스라엘 리서치때 만난 라이다 하썬(40대초반)씨의 집 3번째 아들 마지드(6)는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었다. 라이다 하썬씨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는 드루즈 아이들을 델리얏 엘 카멜에 있는 많은 유치원에서 만날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드는 아랍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랍어보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영어를 쓰며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

비해버리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퍼져있다.

-환생에 대한 드루즈 혼란..선교적관점

누군가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어떤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드루즈 사람들의 7가지 행동 규칙 (code of conduct)

Code of Conduct: The Druze Code of conduct consists of seven principles:

1. love of truth
2. loyalty to other Druze
3. renunciation of all other religions
4. Avoidance of evil and evil doers
5. Accept divine unity in humanity
6. Acceptance of the acts of al-Hakim
7. Obedience to the will of al-Hakim

## IV. 드루즈종파의 선교전략

### 1. 선교현황

현재 가장 많은 드루즈가 살고 있다는 시리아와 레바논, 이스라엘에서는 각각 작은 규모의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규모의 드루즈 선교는 레바논에서 OM단체를 중심으로 80명의 레바논 드루즈가 개종하여 양육을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서의 드루즈 선교 사역은 티베리아스(Tiberias)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한 사람의 드루즈인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50명이 복음화 되어 세례를 받았으며 교회의 드루즈 관련 사역은 유대인 담임목회자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역자가 담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거주 사역자는 드루즈인이지만 오래 전에 크리스천으로 개종하여 목사가 되었고 아랍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드루즈인을 직접 만나 성경을 가르치는 등 양육을 맡고 있다. 미국 선교사를 포함한 4~5명의 선교팀이 5년간 드루즈 사역을 하고 있음도 지난 12기를 통해 조사된 바 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스웨이다 지역에 복음주의 침례교 교회가 4개 있어서 드루즈들도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그러나 목회자를 통해 들은 바로는 아직까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드루즈인은 없으며 경제적 필요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교회에 온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드루즈 종교 지도자인 웨크 아끌이 드루즈인이 교회에 가는 것을 제지하여 교회에 오는 어려움을 가진 자들도 있다고 한다. 본 팀이 확인한 바로 목회자의 드루즈 사역은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매주 주일 예배시간에 신앙고백을 따라 하게 하고 성경말씀을 함께 낭독하는 등 아이들에게 반복하여 입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말씀이 심겨지도록 하고 있었다<sup>73</sup>. 다마스쿠스와 스웨이다에 공동체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드루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현재까지 한국 선교사에 의한 드루즈 선교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13기 시리아 리서치 내내 통역으로

---

<sup>73</sup> 다마스쿠스와 스웨이다에 공동체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함께 동행하였던 형제를 통해 시리아에 있는 학생 선교사와 일반 선교사분들에게 드루즈 종파가 알려졌다. 따라서 시리아 내의 한국인 선교사를 통한 드루즈 사역이 이뤄질 것이다.

## 2. 종족 선교의 방해요소

드루즈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그들의 ‘은닉성’에 있다. 이 ‘은닉성’은 소수종파로써 드루즈가 이슬람이란 거대세력 사이에서 100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기에, 복음 또한 그들 삶에 전해지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드루즈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외부로부터 고립된 높은 산간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이런 지리적인 요인은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리아 골란지역은 이스라엘과 외교적인 마찰 때문에 일부 마을을 제외하고는 시리아 내무부(Syria Ministry of Interior)에서 매년 허가서를 받아야 마을을 들어갈 수 있으며, 이스라엘 골란 지역의 경우는 그 곳에 들어가는 대중교통시설이 발달해 있지 않기에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폐쇄성 때문에 아랍지역 사역자들 사이에서 드루즈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다. 이에, 그 동안 드루즈 종파를 집중으로 한 중보사역과 선교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외에도 드루즈만의 종교관념들은 또 다른 선교 방해요소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다른 특정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다원주의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종교는 한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단지 그 형태만 다를 뿐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종교관은 그들이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드루즈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개인의 신앙심 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드루즈는 종파로써의 성격과 종족으로써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드루즈인들에게 종교는 그들의 삶의 뿌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때문에 그들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그들의 가족과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관은 드루즈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3. 종족 선교의 가능성

#### 1) 성공사례

선교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드루즈종파의 복음화를 위한 전진은 작지만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카멜지역의 티베리아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음화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회에서는 주로 혈연관계에 의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 졌다. 남편이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형이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 진것이다. 이 방법은 복음의 전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복음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를 중시하는 드루즈인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노방 전도등의 방법을 통하는 것보다 확실한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복음 전파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시리아에서는 유시프 목사님의 어린이 대상 사역을 예로 들 수 있다. 어린이 대상 사역은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유년기 시절부터 기독교를 거부감없이 수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이들이 장년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레바논의 경우, OM선교회의 사역자가 80명의 드루즈 회심자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한다.

#### 2) 복음의 접촉점

드루즈 인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레반트지역은 이슬람의 세력이 우세하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포용하는 다 종교 사회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부 무슬림들은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 는 이유 만으로 공휴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유시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살카드 교회의 크리스마스 행사때는 마을 주민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당이 가득 찬 적도 있었다고 한다. 위의 예에서 보듯, 이 지역의 드루즈를 비롯한 무슬림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어느정도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드루즈 젊은층은 최신 유행에 민감하고, 외부 문화를 수용하는 속도가 빠르다. 이들이 외부 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관련 문화를 접해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과 같은 통신매체의 보급은 인터넷을 통한 복음전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선교 방법이나 위성티비를 통한 복음의 전파는 효과적인 복음전파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은 드루즈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선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종교에 대한 구체적인 관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를 수용하는 속도가 이미 사고가 형성된 성인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드루즈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된다면 드루즈의 복음화는 보다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 4. 선교전략

드루즈인에 대한 선교전략을 제시하기 전에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그들만의 특징은 바로 은닉성이다. 이들은 주변으로부터 이단 종교라고 배척당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종교를 끝까지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감추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드루즈는 종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드루즈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드루즈 종파에 소속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드루즈는 자신의 삶이자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런 그들에게 다른 종교를 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 등을 바탕으로 그간의 선교전략들을 검토해 본 결과, 더 이상 그들의 일차적 필요를 채워주는 데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 것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제 우리는 ‘침투사역’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의 선교전략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방법은 우선 드루즈인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서 서로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를 통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하 선교 전략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크게 단기선교, 장기선교, 영상선교로 나누어 각 목록별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선교 전략들을 제시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실제 사례와 예상되는 결과 등을 추가하여 살펴 볼 것이다.

## 1) 단기 선교팀 사역<sup>74</sup>

### (1) 땅 밟기 및 가정 침투

한 달 이내의 기간으로 드루즈가 사는 땅을 밟게 될 단기 선교팀은 땅 밟기 및 가정 침투 사역의 주역이 될 수 있다. 현재 단기 사역을 목적으로 레반트 지역을 방문하는 단기 선교팀의 숫자는 서서히 늘어가는 추세이다. 단기 선교팀이 드루즈 마을을 방문하여, 우선적으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드루즈인들에게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2) 문화사역

단기 선교팀이 드루즈 마을을 방문했을 때, 한국 전통 춤이나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등의 문화 공연을 함으로써 드루즈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2007년 여름에 시리아에서 한국의 선교단체와 시리아 문화부가 주관하여 부채춤, 태권도 시범등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선보이는 문화축제가 많은 시리아인들의 관심하에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한다. 단기 선교팀의 문화사역이 한국인에 대한 드루즈인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서로가 친밀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것이다.

## 2) 장기 선교사 사역<sup>75</sup>

### (1) 전문인 선교

최근 선교계의 화두는 전문인 선교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실력을 쌓은 전문인들이 선교지로 나가서 의료 선교 등의 사역을 하는 전문인 선교는 효과적인 선교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드루즈 거주지역에는 예체능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중동지역에서 접하기가 어려운 음악이나 태권도 교육은 큰 반향

---

<sup>74</sup> 단기 선교팀은 한달이내의 기간으로 그 땅을 방문하는 팀을 지칭한다.

<sup>75</sup> 장기 선교사라 함은 1년이상의 기간을 선교지에서 머물며 사역하는 선교 헌신자를 말한다.

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전문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사역한다면, 이들과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신뢰 관계가 쌓이면 복음 전파의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드루즈인 마을에 공헌 함으로써 선교지의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 (2) 캠퍼스 선교

캠퍼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음 전파와 양육이다. 드루즈인들은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대학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또, 여타 아랍 청년들과 같이 이들도 외국인을 보면 호기심을 느껴 먼저 대화를 걸기도 한다<sup>76</sup>. 이들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 반갑게 대해 주고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유학온 드루즈 학생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양육을 해야 한다. 양육을 통해 종파를 변화시킬 리더를 세우고, 피 양육자 가운데 헌신자를 일으켜서 종파 복음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sup>76</sup> 시리아 현지 사역자 임지훈형제님 인터뷰에서.

## V. 나가는 말

드루즈에 대해 목상하던 중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12-14)’ 드루즈는 ‘잃어버린 양’ 과도 같다는 느낌이다. 세상에는 많은 큰 민족이 있다. 어떤 사람은 중동에 있는 작은 소수 종파 드루즈는 선교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길 잃은 양 한마리 까지도 찾고 싶으신 것이었다.

드루즈는 잃어버린 양 한마리이다. 중동 밖의 세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중동내에서조차도 다른 종파와 민족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레바논, 시리아의 다른 종파 사람들은 드루즈를 가리켜 ‘드루즈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다’, ‘ 그들은 그들의 속을 절대 내보이지 않는다.’ 고 이야기한다. 여호수아 프로젝트와 미전도 종족 세계 연대에서 그들의 복음화에 대한 시급성을 제기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어린양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어린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심정인 것 같다.

이번 보고서를 끝으로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소속 MFR(Middle east Field Reserch)팀의 4차례에 걸친 드루즈 종파 리서치는 막을 내렸다. 기존에 국제지역연구소를 통해 발간되었던 <선교지역연구>에 실린 드루즈 관련 보고서와 우리의 이번 드루즈에 대한 통합적인 보고서는 드루즈 종파의 정체성과 종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읽는 이가 우리의 보고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이며, 아버지께서는 오늘

도 여전히 잃어버린 양 한마리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드루즈 종파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콜먼 사우스 <큐리어스, 시리아> (휘슬러:2005년)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 vol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 vol 2.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 vol 3

.J..A. Hammerton<Lands and peoples of the world> First Volume (Mittal Publications)

Terry Carter, Lara Dunston, Andrew Humphreys

<Lonely Planet Syria&Lebanon> (2004)

Birgit Schaebler <REBELS, SHAYKHS, AND STATE(S) The integration of the Druzes and the struggle for social control in Syria in the 19<sup>th</sup> and 20<sup>th</sup> centuries> (1996)

E. J. BRILL <THE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ITION, (1983)

Sami Nasib Makarem <THE DRUZE FAITH> (Caravan Books:1979)

### 2)일반논문

Joshua Landis <Shishakli and the Druzes>

### 3)웹사이트

[www.cia.gov](http://www.cia.gov)

[www.joshuaproject.net](http://www.joshuaproject.net)

[www.mideastweb.org/druze.htm](http://www.mideastweb.org/druze.htm)

[www.wikipedic.org](http://www.wikipedic.org)